

“자기종교의 의미 재발견 필요”

달라이라마 에수를 말하다

류시화 옮김

1994년 9월 중순 어느날 아침 영국 런던 미들섹스대 강의실.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65)는 350여 개신교신자들 앞에 섰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의사의 씨앗을 심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며 부드럽고 나지막한 인사말로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과 문화배경이 다양하므로 오직 하나의 ‘길’만이 진리의 길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350여 개신교신자대상 달라이라마 영국강연 내용

과 삶에 대한 명징한 통찰로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근본이 같지만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비 형제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종교가 닮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불교교리에서 창조주 하느님이나 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도이자 그리스도교’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신부는 “달라이라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충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각자가 믿는 종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재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불교도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더 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털어놓았다. 이 책은 영국 미디어 미디어와 미국 위즈덤출판사에서 <선한마음(The Good Heart)>으로 출간됐다. 값 7천8백원.

김종근 기자



‘제1회 새글 공모전’ 마련 윤재승 민족사 대표

“작가 발굴 출판계 화두”

“침체된 불교출판계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 신인작가 발굴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새글 공모전을 실시하는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는 작가 발굴을 교계 출판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글을 쓸 작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새글 공모전을 실시하게 된 이면에는 그동안 수차례 시도한 각종 기획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93년 기획한 <한국인의 불교>(전6권)는 시도조차 못했고, 최근에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의 고승 20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관에 부딪혀 있다. 97년까지 완간예정이었던 <한국의 고승 20선>의 경우 지금까지 원고조차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 심지어 적합한 필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부론도 있다.

윤 대표는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교계가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새글 공모전은 21세기 교계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불교전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첫 시도인 셈이다. 민족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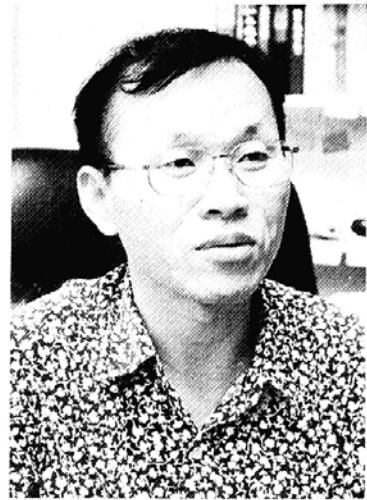
앞으로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자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학술서와 불교개론서를 주로 펴내고 있는 민족사는 20년동안 3백50여종의 불서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불교경전>(전22권), <학술총서>(전44권), <깨달음 총서>(전46권) 시리즈 등은 독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민족사는 89년 ‘깨달음 돈오돈수인가, 돈오점수인가’ 세미나를 여는 등 불교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획으로 불교출판계를 이끌고 있다.

창사 20주년 동안 불서 350여종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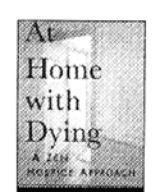
감각의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대중들의 관심과 지식문화를 이끌어가는 첩경이다”고 강조했다.

민족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작가의 자격 기준과 모집분야를 까다롭게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다만 모집분야에서는 전문적 학식이 필요한 학술서와 시·소설류만 제외했다. 불교입문서, 교리해설, 산문집, 불교문화예술품, 사찰기행 등 미발표된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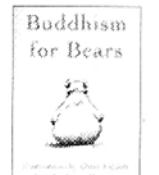


윤 대표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창의력 있는 원고를 수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귀띔했다. 제1회 새글 공모전의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이며 마감은 2000년 3월 31일까지다. 대상(1편) 300만원, 우수상(2편)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문의 (02)732-2403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외신간



▲젠 호스피스 = 역설적인 아름다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젠 호스피스 (At Home With Dying : A Zen Hospice Approach)>가 출간됐다. 메릴 코렛은 이 책에서 죽음이란 다름 삶을 받는 종교적 의식이라며 건강한 종교인이 여기에 참여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렛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불교간병인센터에서 10년간을 자원봉사해 온 여성불자. 그녀는 이 책에서 불교간병인센터의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심분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곁들여 있다. Shambhala Pubns 간행 ISBN 1570625158



▲곰에서 찾는 불교관 = 야생에서 살아가는 곰의 생태습관을 우화하고, 그 속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재시한 <곰에서 찾는 불교관(Buddhism for Bears)>이 출간됐다. 클레어 닐슨에 따르면 곰은 우리와 같이 공(空)을 느낄뿐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무리의 소중함과 각 개체간의 인드라적 관계를 체험한다고 한다. 닐슨은 동화적 언어와 서술을 통해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속한 곳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미국의 저명한 일러스트 작가 크리스 리델의 삽화도 감상할 수 있다. VHPS/St. Martins Press 간행 ISBN 0312205031



▲젠 달력 = 불교가 서구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고작 1세기. 그러나 서구에서 불교는 새로운 대안문화로 자리잡을 만큼 급성장했다. 과연 1세기 동안 불교는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만약 여기에 해답을 찾고 싶은 불자가 있다면 <젠 달력(The Zen Calendar)>을 읽어보길 바란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윌러는 리오 추(베트남), 토로우(미국), 달라이라마(티벳), 앤글러(독일) 등의 인물들 통해 불교가 서구에 미친 영향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서구불교 이해를 돕고 있다. 윌러 이 연대기를 2권으로 기획했고, 이 책에서는 1세기 가운데 후반기 50년이 수록됐다. Workman Publishing Company 간행 ISBN 0761115986 오종욱기자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미니북 출간



지난 6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출간돼 불자들은 물론 일반독자들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정찬주씨(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의 암자 순례기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가 미니북으로 새롭게 나왔다. 처음 출간됐던 판형(신국판형 210X150)의 4분의 1크기(110X83)인 이 책은 활자를 작게 했을 뿐 내용은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휴대하고 다니며 틈틈이 읽기에 제격이다. 값 3천5백원.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21세기 우리문화

역사서 ‘눈길’

역사의 의문과 진실을 파헤친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 두권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2>(김영사)가 미스터리에 싸인 역사 사실을 분석한 책이라면 <21세기 우리문화>(한겨레신문사)는 새로운 세기의 길을 찾기 위해 역사를 문화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다. 이덕일·이희근씨가 함께 펴낸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2>는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추적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우리 역사를 바꿀 또 다른 30가지 오해와 진실’이란 부제로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역사 상황과 1차 자료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치밀한 자

료 고증을 토대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민족학자 주강현씨(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가 쓴 <21세기 우리문화>(한겨레신문사)는 21세기를 위한 우리문화 길잡이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덟가지 테마를 고정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민중생활관이라는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학과 서교논쟁을 무위로 돌리고 조선의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조선으로 되어버린 어긋남’에서는 미국의 기독교문화와 일본의 식민지 문화가 우리문화를 왜곡시키는 과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장승과 솥대에 의지한 조선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화두의 향기

109가지 화두·선사·선서 함께 정리

화두집에서 후세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들만 가려 뽑아 해설 대신 선사들의 설명(평창)을 압축하여 엮은 <화두의 향기>(시공사)가 나왔다. <무문관 가는길> (이빛고) 등을 쓴 이창(54)씨가 펴낸 이 책의 1부 ‘보았으나 보지 못했다’만났으나 만나지 못했다’에서는 우리나라 선자들이 자주 거론해 온 화두 109가지를 엄선 소개하고 있다. 2부 ‘화두의 세계는 화두가 어떻게 생겨났고,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발전시킨 선사들로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화두를 전 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한국불학사

한국불학의 독창적 무늬와 살결

인도 중국 일본과 다른 우리의 사상적 페르다 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호화할 수 있는가. 한국 불교 또는 불학의 특징을 ‘종합성’과 ‘독창성’ 또는 일승(一乘)과 일미(一味)의 코드를 정리한 <한국불학사>(연기사)가 나왔다. 도서출판 연기사의 연기학술총서 첫번째 권.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고영섭씨가 펴낸 이 책은 ‘한국의 사상사’ 또는 ‘한국철학사’를 위한 기초적인 첫 작업으로 신라·고려시대편을 싣고 있다. 한국불학의 무늬와 살결, 신라의 사상가들, 고려의 사상가들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값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가천도	우 톨	효 립
2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3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4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참작시대
5	나는 아작도 스님이...	최인호	여 백
6	종경	원 성	이 레
7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소 광 섭	서울대출판부
8	달라이라마 에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나무
9	불교입문	조계종원각부	조계종출판사
10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현 장	우 리

구입문의: (02)737-0695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세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실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